

7 광주일보
제17633호 2006년 12월 21일 목요일

노관구 순천시장 부하직원들에 피소

노관구 순천시장이 20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권력남용과 폭력행위, 공공기관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노 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순천시지부는 고소장에서 "노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난 9월22일 전공노 사무실 폐쇄 당시 폭력을 행사했고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받도록 했으며 지난 10월 조합비 이체 차단을 위해 순천농협출장소에 업무상 획득한 1천100여명의 조합원 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배제 징계하겠다고 강요했다"며 강요 혐의로 관련 공무원 4명을 고소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주민에 폭행당해 인애동산 간부 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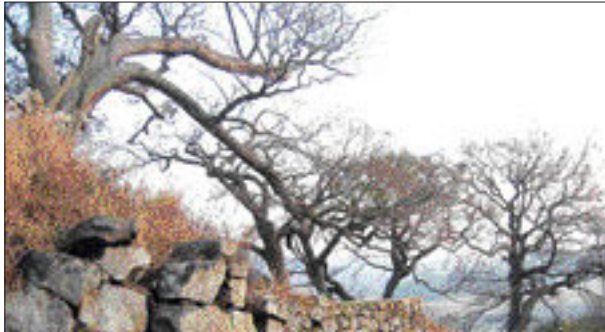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간부가 이를 반대하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M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0일 인애동산 측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경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효프집에서 인애동산 김모(43)팀장이 주민들과 노인요양원 시설 재배치 등 문제를 논의하던 도중 주민 박모씨가 휘두른 500cc 맥주잔에 머리를 맞아 3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애동산 관계자는 "주민대표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6시경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합의를 찾던 중이었는데 돌발적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며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영광 법성진 숲쟁이' 명승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영광군 법성면 '영광 법성진 숲쟁이'(사진)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법성포(法城浦)는 삼국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 가운데 하나였으며 법성진(法城鎭)은 법성 지역에 구축된 수군 행정구역의 일컫는다.

법성진성은 조선 중종 9년(1514)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전체 둘레는 482m이며 현재는 북벽 전 구간과 동·서벽 일부가 남아있다. 숲쟁이는 법성포에서 흥농으로 향하는 지방도로의 고갯마루 좌우측 능선을 따라 300m가량 조성된 숲으로 '숲쟁이'란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디지털 시대...편지는 추억속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분주한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 우편집중국. e메일 등 디지털 열풍으로 예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출지만 군생활 열심히 해야해.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에 위치한 광주 우편집중국, 연말연시를 맞아 한꺼번에 밀려드는 우편물 처리에 분주하다.

19일 밤 9시, 소형통상작업장, 작업대 위에는 소중한 마음이 담긴 종이로 넘쳐났다. 언뜻 봐도 수만장이 넘었다. 하얀 봉투들 사이로 보이는 빨강·노랑·파랑 빛. 하지만 금세 눈앞에

휴대전화·e메일 확산 편지 해마다 크게 줄어 우체국은 택배 위주로

서 사라졌다. 편지 분류팀 베테랑 김희정(여·47)씨가 재빠르게 손으로 낚아채 바구니에 담았다. 우편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봉투 안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편지도 '경계대상' 기계에 걸려 고장 날 우려가 있고, 시스템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일만 5년째, 10분이 채 안돼 바구니 안이 수백 개 편지로 가득 찼다. 3~4명의 팀원도 실력이 만만찮다. 김씨는 "기계로 처리할 수 없는 우편물을 1차로 직접 손으로 골라낸다"고 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편지꾸러미가 쏟아졌다. 광주·전남 70여 곳에서 배달되는 편지다.

옆에서는 정영덕(여·48)씨의 손이 바빠 움직였다. 바구니에서 1차례 골라낸 편지를 한 움큼씩 때어내 기계 위에 올렸다. 순간 수십 장의 편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기계가 우편번호를 인식, 자동으로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당 최대 3만 통까지 처리할 수 있다. 9년 전 처음 도입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연말 들어 하루 작업량은 평소(7만 통)에 비해 54%(13만 통) 정도 늘었다. 하지만 e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우편물은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4억1천통이지만 ▲2004년 3억5천통 ▲2005년에는 2억3천통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대폭 늘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3년 122억건에서 ▲2004년 164억건 ▲2005년 305억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미뤄보면 올해는 377억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편지는 절반이 줄었지만, 문자메시지는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그대신 부피가 큰 택배나 등기 등이 늘었다. 우체국 택배는 지난해 557만개에서 올해(11월 말 현재)는 758만개로 1년 새 36% 증가했다. 등기도 매년 800~900만통씩 늘고 있는 추세다.

백종주(42) 통상팀장은 "이 맘 때면 벨 소리 카드·입체카드·형광카드 등 특이한 카드가 바구니 가득 넘쳐났지만, 지금은 예년에 비해 양이 30% 줄어든 것 같다"면서 "e메일·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디지털 통신이 발달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루 앞두고

현대교통 파업 결의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교통의 노조가 20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광주시는 파업을 강행하면 사업면허 취소로 검토하고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다른 회사의 여유차량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나 장기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12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운전자 198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전체 86개 노선중 10개 노선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 결정은 대중교통의 서

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준공영제 시행에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어서 행정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노선개편으로 가뜩이나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부 업체의 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시 관계자는 "파업 강행에 대비, 전세버스 등 대체 차량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파업과 체불, 자본잠식 등을 들어 면허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준공영제 발목을 잡는 불법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753곳 수질검사 결과 '영터리'

집단 식중독의 원인 검사조작 37명 적발

지하수 개발 업체의 부탁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검사 기관 직원과 조작을 부당한 개발업자, 뇌물을 받은 국책 환경연구기관 간부 등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Y환경생명기술연구원 이모(54)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 검사기관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 박모(45) 과장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질 검사기관 대표와 연구원들은 작년 1월~올해 10월 지하

수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질산성 질소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 52개의 민간·공공 수질검사 기관 중 14개 기관이 음용수(마시는 지하수) 1천410곳 등 1천753곳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는 연중 1만8천여곳(2년간 3만6천여곳)에서 이뤄지며 이번에 적발된 1천753곳은 2년간 이뤄지는 수질 검사 대상의 5%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사 조작이 확인된 음용수가 공급된 곳 중에는 가정집 489곳, 학교 168곳, 어린이집 19곳, 마을 상수도 286곳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평소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세대대란지?
평면면적 80~90평 광역 100여개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즉제불만처리부서임이 규정에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lkpac.or.kr
한국신문총협회

지인 카드 훔쳐 명품 구입 '부부 도둑'

○평소 아는 사람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부부 도둑이 경찰에 탐미.

○19일 광주 동부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힌 오모(여·25)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경 광주시 남구 사동 이모(여·28)씨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 카드로 남원 김모(34)씨와 함께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루이비통 가방 등 18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

○오씨 부부는 신용카드를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남편이 이전에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을 밝혀내고 남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 ↔ 해상도 친선기 휴향

크리스마스/연말을 골프와 관광의 최적지인 '하이난'에서

★탐 동역의 원소★
12/24, 28, 31

관광 4일 ₩749,000 / 5일 ₩799,000
정액여행자 조이는 60% 할인 (1인당 2명까지 가능)
왕십이섬 + 톱기온천 + 뽕목차 체험

2006.12.21 ~ 2007.2.11

1인 ₩800,000
2인 ₩900,000
3인 ₩950,000
4인 ₩990,000

1인 ₩800,000
2인 ₩900,000
3인 ₩950,000
4인 ₩990,000